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본말사주지 연수

월정사(주지 현해)는 7월 8일~9일 이틀간 속초 신홍사에서 본·말사주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사찰복지, 전법의 해와 관련한 강제가 진행되며, 현장학습으로 보리수마음을 위문한다.

법주사 불교대학 입학식

법주사(주지 혜광)는 27일 대웅보전에서 불교대학 입학식을 거행한다.

3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는 불교교양대학은 기초교리, 경전, 사찰순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미교종

백진결사회 호국영령 천도

백진결사회(회장 일로)는 22일 3군단 군법당 봉암사에서 6.25 당시 현리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백진결사회 회원님들은 이날 국내인민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회에 이어 무명용사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천도재를 거행했다.

한불청 통일환경전 시상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15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창립 86주년 기념법회 및 제2회 참가 청소년통일환경문화예술대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도각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관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김명선(이수초등학교)이 통일원장관상을, 송지민(유석초등학교), 김미화(은석초등학교)학생이 문체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모두 1백52명의 참가자가 각 부문별로 상장을 받았다.

진각종

흑룡강성 심인당 현공

통리원(원장 성초)은 24일 중국 흑룡강성 해동심인당 건립봉사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현공봉사를 봉행했다. 이로써 진각종은 미국 LA 불광심인당에 이어 두번째 해외 심인당을 갖게 됐다.

본지 20면 증편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 등 종단간부 15명이 참석한 이날 현공봉사에서 중국 교도 3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사도 봉행됐다.

관음종

묘각사 석조관음상 점안

총무원(원장 홍파)은 26일 오전 11시 묘각사에서 대천 종정스님 및 종단간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조관음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찰 위쪽 자연석을 2년여에 걸쳐 조각한 높이 6m 너비 3m 크기의 석조관음보살상은 웅대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총무원은 또 이날을 기해 묘각사 대웅전 복원봉사의 원안 성취를 기원하는 천일기도 입재를 봉행했다.

법륜종

순국선열 수륙고혼 천도

총무원(원장 혜우)은 24일 경기 여주를 국민관광단지에서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순국선열 및 유주주주 수륙고혼 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 및 유주주주 수륙고혼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번 대법회는 진혼사, 분향 및 헌화에 이어 영산대제 순으로 진행됐다.

미타종

'캄' 테풍 승양초청 법회

총무원(종정 벽암)은 테풍 캄보디아 승양 초청 국제마정수기 법회를 22일 총복 봉암사에서 봉행한데 이어 26일과 29일 광주와 경기 이천에서 2·3차 법회를 개최한다. <인터뷰 4면>

캄보디아 최고승이자 노도롬 시아누크 국왕의 왕사인 테풍스님 등 캄보디아 스님 5명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국제마정수기법회는 26일 전남살내체육관에서 2차 법회를 봉행하며, 29일에는 경기 이천 염불선원에서 무량수전 낙성법회와 마정수기법회를 여는 등 3차 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테풍스님을 수행하는 캄보디아 승려 2명은 이번 행사 후 1년간 한국에 머물며 한·불교교를 공부하게 되며, 미타종의 승려 2명도 캄보디아에서 유학하게 된다.

스리랑카에 한국 한방병원

한-스 불교우호교류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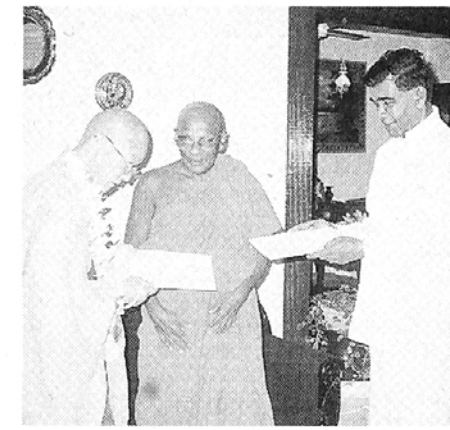
현지 신도 땅 1만평 기증 전통식 한국사찰도 건립

스리랑카에 4년제 한의대와 한방병원 한국식 사찰이 건립된다. 한-스 불교문화우호교류회 회장 종운스님(해원사 주지)은 6월1일 스리랑카 싸이임종단의 신도 외타마하다(54, 의사) 부부로 부터 아로불라 인근 땅 1만여평의 부지를 기증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불사는 한-스불교문화우호교류회 한국측 종운스님과 스리랑카측 사다난다스님(스-한불교문화우호교류회 회장), 수카타나소회장(국립병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신축될 한국사찰은 종운스님을 비롯 대은스님(해동 불교대학) 등 한국측이 맡아 오는 10월 착공 2000년에 준공된다. 또 대학과 병원은 스리랑카 의사협회에서 추진키로하는 한편 한의 및 침술학 등 전통의료에 대한 상호교류도 이뤄지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1일 한-스불교문화우호교류회 제5차 대회가 스리랑카 아로불라 싸다난다 사원내 법장스님(한-대불교교류회 회장, 수덕사주지)이 규범스님(한국불교대학교 이사장) 등 조계 대교 조동종 스님들 38명과 한국신도 40여명, 스리랑카 스님 50여명 관공성장, 차관을 비롯 5부장관과 국회의원 및 신도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스 불교문화우호교류회 회장 종운스님(해원사 주지)은 6월1일 스리랑카 싸이임종단의 신도 외타마하다(54, 의사) 부부로 부터 아로불라 인근 땅 1만여평의 부지를 기증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회장 종운스님은 사원내 초등학교에 160명에게 5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하고 컴퓨터와 팩스 화음품 의류1천점을 전달했다. 이어 일승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의 양국 우호증진을 기원하는 영산제 시연도 펼쳐졌다.

한편 법장스님 대은스님 등 7명의 스님들은 스리랑카 벨라나국립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위영란 기자

佛放 송병욱·김선도씨 구속

前이사장·사장도 조사방침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피의자 김선도씨(前 불교방송 경리부장)가 16일 오전8시를 기해 구속, 김철애 송치원씨(이씨 송병욱씨)는 20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대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불교방송정상화를 위한 법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이하 법대위)는 17일 '불교방송 사태에 대한 법불교대책위 성명서'를 통해 △법대위의 특위 결할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등을 조계종 방송 특위에 요구했다.

17일 긴급체포된 송병욱씨는 6억 4천만원 횡령 및 김씨 도피자금 4천5백만원 전달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됐으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번 공금횡령 과정에서 상부지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김

이사장 박종하스님 조해영 前사장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 '불교방송사태 진상특위'(위원장 정대스님·이하 방송특위)는 20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대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불교방송정상화를 위한 법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지원스님·이하 법대위)는 17일 '불교방송 사태에 대한 법불교대책위 성명서'를 통해 △법대위의 특위 결할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등을 조계종 방송 특위에 요구했다.

김포공항 입국 즉시 구속돼있는 김선도씨.

서의원 조계종 前 총무원장에 대한 소문이 다시 퍼오르기도 시작했다. 종권을 되찾기 위해 세를 규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한국당의 한 실세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조계종에 돌아가지 않겠다”

월간 '조선' 서의원 前원장 근황보도

“종권 탈취기도소문 사실무근”

이와 관련해 '월간 조선' 7월호는 12쪽에 걸쳐 前원장의 최근 근황과 소문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자세히 실었다. 월간 조선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복 월악산에서 3년째 생식하며 수행중이라는 서前원장은 더 이상 조계종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며,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남겼다. 신한국당의 한 실세가 현 조계종 총무원에 대항할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과 접촉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만난적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반(反)종단세력과 규합해 종권탈취를 꾀한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홍콩반환 불교위상 '이상無'

홍법원 성우스님등 전망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됨에 따른 홍콩 불교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불교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친중국계열이면서 홍콩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각광스님(홍콩불교회 회장)의 지원으로 종교세가 더 커지지 않겠냐는 게 홍콩 불교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홍콩홍법원 이사장 성우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은 “반환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홍콩 불교계는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 높은 자치 수준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친중국계열의 스님인 각광스님이 홍콩 불교를 좌우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종교적 자유를 불신, 홍콩을 떠났다. 또 금불상과 불화 등이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의 홍콩 접수 후 문화재급 예술품 반출 금지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한 소장가들이 해외도피 행렬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참여불교협의기구(INEB,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가 지난 12일 태국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갖고 “베트남 정부가 불교사원연합(UVBC, Unified Buddhist Church of Vietnam)을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하고 탄압을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1954년에 설립된 UVBC는 그동안 베트남 국내에서 평화·인권·환경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 사회주의 베트남 정부는 UVBC

“베트남 종교탄압 중지하라”

참여불교협 'UVBC승려 고문' 비난 성명

를 이적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연합회 소속 스님들을 협박·구금·고문하는 등 탄압해 왔다. 반면 사회주의 정부 수립 후 설립된 '베트남사원' (VBC, Vietnam Buddhist Church)만을 합법적인 불교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참여불교협의기구(INEB)는 종교회화와 불교사회운동 등을 위해 1989년 태국에서 설립돼 일본, 인도, 한국, 태국 미국 독일 등 현재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불교단체.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공원에 체육관 '54% 반대'

경주시민 569명 설문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 부지 선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0세이상 경주시민 5백69명을 대상으로 황성공원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4%가 반대를, 19%가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찬성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황성공원의 역사적 숲과 녹지공간 훼손이 49%를 차지해 황성공원의 역사성과 녹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가지에서 가까운 점이 30%를, 공설운동장 옆이라는 점을 꼽았다.

마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참 보배라면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고생을 겪은 뒤 어디 먼나라 낯선 곳에서 찾는 중 앙겔처럼 그럭저럭 않다. 바로 내안에 그 보배가 있기에 무척 사색이든 거지이든 누구나도 참 보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얻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재산제 복음: 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가이드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 체 험 사 례 ●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월초파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0593)34-1115~6, 012-598-1015

정성과 열이 담긴

남원 목기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쫄뽀하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 목기 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062)511-9641
대표 임동주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